

제51호 1987년 11월 20일

# 물리치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 추계 학술대회 성황리에 끝나

- 회원 1,000여명 참석 -



제 24 차 추계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7,8일에 걸쳐 전라남도 광주시 안보회관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김용천 회장은 인사 말에서 「실력있는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함이 우리의 의무이며 희망이며 발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은 전계휴 의료제도 과정이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을 통해 학술적인 연구 및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특강에 이어 일반연제 5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일반연제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의 임상적 고찰  
..... 김 인 복 (서울대병원)
2. 초음파 적용시 사용매질의 종류에 따른 조직 온도상승율에 관한 조사 연구  
..... 민 경 옥 (동남보건전문대)
3. 초음파 치료용 매질의 종류에 따른 환자들의 피부감각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 민 경 옥 (동남보건전문대)
4. 편마비 환자의 계단형 관절을 장치한 장완 보조기에 대한 고찰  
..... 박 형 준 (영남의료원)
5. Volkmann 저혈성 구축의 임상적 고찰  
..... 이 현 일 (인천간호전문대)

# 추계 학술대회

## 축사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더욱 의미있게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우기 1987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이곳 유서 깊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앞으로 호남지역의 물리치료 분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일이 또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하려면 우선 각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우리 회원들이 그 누구도 부인 못할 당면 과제이며 이러한 균형있는 발전 위에서 지금보다 좀더 가속적인 협회 전체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이처럼 상황을 이뤄주신 학술대회 참석의 열의도가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추진력이 될 것이며 그 추진력의 힘에 정비례하며 우리의 법적, 사회적 위치는 격상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와 대우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옛 격언에 있는 말처럼 "사향은 싸고싸도 그 향기가 새어 나온다"는 정신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능하고 실력있는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함이 우리의 의무이며, 희망이며, 발전인 것입니다.

20여년이 넘는 우리 협회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여 보면 우리들의 내일은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며 이 확신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건사회부 장관님을 대리하여 전계휴 의료제도 과장님, 이곳 호남지역의 쟁쟁하신 의료계의 명사들께서 내빈으로 참석하여 계십니다. 다름아닌 우리 협회의 힘찬 내일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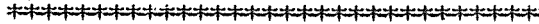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조의 바탕 위

에 우리 서로 조금만 더 노력하여 협회를 구심점으로 뭉치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수개월간 애쓰신 전남지부 박승규 지부장님을 위시한 지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황을 이뤄주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 11, 7

회장 김 용 천



## 치사

尊敬하는 大韓物理治療士協會 김용천 會長님과 會員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來賓여러분!

오늘 大韓物理治療士協會 第 24次 秋季學術大會에서 本人이 致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物理治療士協會에서는 해마다 學術大會를 통하여 會員들의 資質向上을 圖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默默히 再活醫學分野의 一線에서 物理治療의 技術水準을 꾸준히 向上시킴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86 亞細亞競技大會時 여러분들이 보여준 努力으로 말미암아 選手 體力管理는 勿論大會가 成功的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來年 88 서울올림픽과 障礙者 올림픽에서도 여러분의 積極的인 支援이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付託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數年間의 經濟的 發展으로 國民들의 生活水準이 向上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國民들의 健康에 대한 關心이 그 어느 分野보다도 高潮되어 良質의 醫療서비스를 提供받기를 願하며 政

府에서도 이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多角的인 施策을 推進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 다가오는 1989年度부터는 全國民醫療保險을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保健醫療施策은 政府의 努力과 함께 醫療界 各分野가 相互補完의인 協力關係를 維持하면서 맡은 바 責任과 義務를 다할 때 그 成果가 倍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분이 擔當하고 계시는 物理治療分野도 再活醫學에서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分野인 만큼, 學術大會나 補修教育 등을 통하여 學術的인 研究 및 技術의 發展을 이룩할 때, 우리

나라 物理治療分野의 技術 發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學術大會를 準備하기 위하여 애쓰신 任員陣과 關係者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다시 한 번 致賀를 드리며 大韓物理治療士協會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年 11月 7日

保健社會部長官 李·海·元



## 슬관절 관절경술에 대하여

관절경에 대한 관심은 1918년 일본의 Takagi가 방광경을 이용하여 사체의 슬관절을 관찰함을 시작으로 더욱 고조되었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비약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여 이제는 진단 및 예후의 판정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에까지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1. 장비 및 기구

#### 1) Arthroscope

조명계통, 광학계통 및 이들을 보호하는 금속 부분으로 구성되며, 광학계통은 rod-lens system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0°, 30°, 70°의 시각 방향을 가진 것들이 있으나 30°의 관절경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명계통은 multiple light-conducting glass fibrils로 구성되며 cold light source에서 발생한 빛을 관절 내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 2) Probe

Arthroscope 다음으로 중요한 기구로 “extension of the arthroscopists finger”로 불

리우리 만큼 검사 및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데 이를 통한 감촉을 익힘이 매우 중요하다.

#### 3) Scissors

여러 형태가 있으나 straight와 hooked 두 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hooked scissors이 많이 사용된다.

#### 4) 기 타

Basket forceps, Grasping clamps, Knife-si Kerrison rongeur, Motorized meniscus cutter and shaver, 그리고 thochars와 sheaths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3 liter 정도의 Ringer's lactate solution을 담을수 있는 irrigation system과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leg holder, tourniquet 등이 필요하다.

### 2. 장단점

#### 1) 장 점

수술 후 이환율의 감소, 절개의 극소화, 염증